

現在避妊實踐率에 관한 分析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資料를 中心으로

目 次

- I. 序 論
- II. 分析資料 및 方法
- III. 分析結果
- IV.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의 有配偶婦人들의 現在避妊實踐率은 1976年度 標本調査에 의하면 約 44퍼센트의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이 水準은 1973年 現在 美國과 英國의 각각 75퍼센트 및 65퍼센트에 比하면 아직 상당한 隔差를 나타내고 있고 더우기 東南亞地域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1976年 現在의 現在避妊實踐率인 77퍼센트와 61퍼센트에 比해서도 현저하게 低調한 狀態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1981년까지 設定된 人口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現在實踐率을 60퍼센트 線으로 增加시켜야 한다는 것이 現人口政策樹立當局의 의견인 동시에 希望인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實踐率의 向上을 위해서는 어느 對象을 어떤 方法으로 接近해야 할 것인가란 事業推進 方案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家族計劃實踐에 영향을 주는 要因分析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避妊受容과 관련되는 要因들에 관한 研究分析은 상당한 數에 達하고 있고, 여러가지의 社會·人口學的 變數들이 要因으로서 提示되어 왔다. 이 수 많은 要因들은 複合的인 交互作用을 통해 避妊受容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個個 要因들을 獨立的으로 취급하여 關与度의 크기를 比較하기는 곤란하겠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分析 結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다음 세가지의 主要要因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1) 婦人의 年齡
- 2)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
- 3) 現存男兒數

이들 세가지 要因들 간에는 높은 關聯性이 予想되므로 獨立的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婦人의 年齡에 따라 避妊目的이 出生間隔調節이든, 아니면 斷產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

* 漢陽大學校 醫科大學 預防醫學教室 教授.

** 家族計劃研究院 人口動態擔當室.

으나 婦人들의 避妊實踐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궁극적인 要因은 역시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婦人들의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는 다시 少子女數에 대한 價值規範形成의 程度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男兒選好思想에 따라 크게 左右될 것이므로 이 要因들에 대한 戰略的인 方案의 樹立과 成功與否의 정도가 앞으로 避妊實踐率의 60 퍼센트 線까지의 達成可能性을 판가름한다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予測이 妥當하려면 우선 現存子女數에 대하여 “많다 또는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可妊有配偶婦人들의 避妊實踐率은 “적다”고 느끼고 있는 婦人들에 비해 훨씬 높아야 할 것이고 現存男兒數에 따라서는 그 實踐率이 크게 변동한다는 관계가 성립해야 할 것이다. 本分析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76年 現在 可妊有配偶婦人들의 避妊實踐樣相을 1) 年齡, 2)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 3) 現存男兒數別로 관찰해 보기로 한다. 한편, 現在 避妊實踐率에 영향을 주는 이들 要因의 關與度에 따라 앞으로의 實踐率의 向上을 위한 政策設定에 도움이 되는 資料를 提示하는데도 目的이 있으며 끝으로 地域間의 現在實踐率을 標準化하기 위한 方法도 소개하였다.

II. 分析資料 및 方法

資料로서는 家族計劃研究院 주치로 1976년에 실시된 家族計劃綜合評價를 위한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結果를 利用하였다.

本調査의 5,008名의 有配偶可妊婦人 中에서 調査目的에 부합되는 4,665名을 다음과 같은 變數에 의하여 分類하고 이에 따른 現在 避妊實踐率을 比較해 보았다.

變數項目에 따른 項目內区分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応答婦人의 年齡 : 30歲 以下와 30歲 以上.
- 2) 現存子女數 : 0, 1~2, 3~4, 5 以上.
- 3) 現存男兒數 : 0, 1, 2, 3 以上.
- 4) 現存女兒數 : 0, 1, 2, 3 以上.
- 5)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 : “많다 또는 적당하다”와 “적다 또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다”

上記한 變數別로 現在 避妊實踐率의 크기를 比較해 봄으로서 다음과 같은 內容을 年齡群別로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1) 現存子女數에 대하여 “많다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婦人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避妊實踐率을 나타내 주고 있는가?

(2) 現存子女數에 대하여 “적다 또는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態度를 취하고 있는 婦人들은 어느 정도의 避妊實踐率을 나타내 주고 있는가?

(3) 男兒選好思想이 家族計劃實踐率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위의 (1)과 (2)의 現在避妊實踐率을 現存子女數, 現存男兒 및 女兒數別로 다시 分類해 봄으로써 男兒選好의 영향을 알아본다.

(4) 標準化한 現在實踐率에 관한 提案, 現在避妊實踐率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주는 세가지 要因을 選擇하여 地域別 現在實踐率을 標準化해주는 과정을 提示해 준다.

III. 分析結果

1. 現存子女數에 關係 “ 많다 또는 적당하다 ”고 생각하는 婦人들의 現在避妊實踐率은 53퍼센트의 水準을 보이고 있다(表 1 참조).

Table 1. Currently Practicing Rate of Contraception by Respondent's Attitude towards the Number of Children and Age

Number of Children	Too Many or Appropriate			Too Less or Indifference		
	<30	30<	Total	<30	30<	Total
Currently Practicing Rate(%)	42.1	57.6	53.0	13.8	35.6	18.0
Number of Respondents	11,139	2,696	3,835	661	160	821

그러나 이들의 現在實踐率은 30歲 以下와 以上의 두 年齡群에 따라 또한 現存男兒 및 女兒數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1, 2, 3, 4 참조).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들 중에서도 30歲 以下群의 現在實踐率은 42퍼센트인데 비해, 30歲 以上群에서는 58퍼센트를 나타내주고 있고, 現存男兒 및 女兒數別로 볼 때에도 一律적으로 30歲 以下群보다 30歲 以上群에서 實踐率이 높게 나타나 있다(表 2, 3, 4 참조).

Table 2. Currently Practicing Rate of Contraception by Respondent's Attitude towards the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Living Sons and Age

	<30									30<								
	Too Many or Appropriate			Too Less or Indifference			Total			Too Many or Appropriate			Too Less or Indifference			Total		
	Number of Living Sons			Number of Living Sons			Number of Living Sons			Number of Living Sons			Number of Living Sons			Number of Living Sons		
Currently Practicing Rate(%)	26.6	40.5	51.6	53.6	12.3	14.6	19.4	-	29.6	57.0	61.3	57.9	8.1	37.5	45.2	-		
Number of Respondents	207	523	353	56	285	343	31	2	135	672	1,075	814	37	80	31	12		

現存子女數에 대해 “ 많다 또는 적당하다 ”고 応答하면서도 現在避妊實踐率은 30歲 以下群과 以上群에서 각각 42퍼센트와 58퍼센트를 넘지않고 있다는 것은 少數子女의 願望이 받아들인 다 하

더라도 全体婦人들의 現在實踐率이 1981年度 目標인 60퍼센트 線에 도달하기는 곤란할 것임을 暗示해 주고 있다. 한편, 이들의 現在實踐率은 現存男兒數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現存子女數가 “많다 또는 적당하다”고 應答하는 婦人들 중에서도 아들이 없는 경우의 現在避妊實踐率은 27퍼센트(30歲 以下群)와 30퍼센트(30歲 以上群) 線을 넘지 못하고 있고 現存男兒數가 2名인 男兒를 가진 경우에는 각각 52, 61퍼센트의 높은 現在實踐率을 나타내고 있다(表2 참조).

이와 달리 現存女兒數의 크기는 現在實踐率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表3 참조).

Table 3. Currently Practicing Rate of Contraception by Respondent's Attitude towards the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Living Daughters and Age

	<30								30<							
	Too Many or Appropriate				Too Less or Indifference				Too Many or Appropriate				Too Less or Indifference			
	Number of Living Daughters				Number of Living Daughters				Number of Living Daughters				Number of Living Daughters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Currently Practicing Rate(%)	45.7	47.2	33.6	28.0	12.4	14.6	17.6	-	62.1	64.2	57.7	49.2	47.5	29.4	25.9	-
Number of Respondents	304	468	292	75	291	315	51	4	330	819	723	823	59	68	27	6

이와 같은 現狀은 現存子女數에 대한 滿足度와 避妊實踐動機는 現存男兒數에 따라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앞으로의 現在實踐率이 60퍼센트 水準에 達할 수 있는가의 與否는 男兒選好思想이 어느 정도 是正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1. 現存子女數에 관하여 “적당 또는 생각해본 일이 없다”란 態度를 취하고 있는 婦人들의 現在避妊實踐率은 30歲 以下群에서 14퍼센트, 30歲 以上群에서 36퍼센트의 水準을 보여주고 있어 年齡群間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表1 참조). 사실 이 婦人들은 子女數의 增加를 억제하기 위한 避妊實踐의 必要性을 느끼지 않고 있는 群이므로 이들의 避妊은 주로 吐울조절이나 기타 理由로 妊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도 現存男兒數에 따른 現在實踐率은 크게 영향받고 있다. 즉, 30歲 以下인 婦人들에서는 現存男兒數別 避妊實踐率은 12~19퍼센트 정도의 범위에 머물고 있어 差가 심하지 않으나, 30歲 以上群에서는 現存男兒가 없는 경우는 現在避妊實踐率이 8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나 1명인 경우는 38퍼센트, 2명에서는 45퍼센트의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2.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別로 본 現在實踐率의 비교

現存子女數에 대하여 “많다 또는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婦人群과 “적당 또는 아직 생각해본 일이 없다”라는 態度를 가진 婦人群間에는 避妊實踐率에 현저한 差가 있을 것은 當然할 것

이다. 사실상 前者에서 53퍼센트, 後者에서는 18퍼센트의 現在實踐率을 나타내고 있다(表 1 참조). 그러나 이 實踐率의 隔差는 年齡과 現存男兒數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0歲 以下群에서의 “많다 또는 적당하다”群에서는 42퍼센트, “적다 또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다”群에서는 14퍼센트의 現在實踐率으로써 予期한 바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30歲 以上群에서는 前者가 58퍼센트, 後者가 36퍼센트으로써 그 隔差가 현저하게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歲 以上群에서는 現存子女數에 대하여 “적다 또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應答한 婦人들 중에서도 現存男兒數가 1명인 경우는 38퍼센트, 2명인 경우는 45퍼센트까지의 現在避妊實踐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 水準은 現存子女數에 대하여 “많다 또는 적당하다”란 態度를 취하고 있는 婦人들의 男兒 1명인 경우의 57퍼센트, 2명인 경우의 61퍼센트 등의 實踐率에 비해 그 隔差가 현저하게 좁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表 2 참조).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現在實踐率은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年齡과 現存男兒數에 따라서 더욱 현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暗示해 주고 있다.

Table 4. Currently Practicing Rate of Contraception by Respondent's Attitude towards the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Children Owned and Age

	<30								30<							
	Too Many or Appropriate				Too Less or Indifference				Too Many or Appropriate				Too Less or Indifference			
	Number of Living Children				Number of Living Children				Number of Living Children				Number of Living Children			
	0	1-2	3-4	5+	0	1-2	3-4	5+	0	1-2	3-4	5+	0	1-2	3-4	5+
Currently Practicing Rate(%)	-	40.5	44.9	36.4	11.1	13.8	15.4	-	-	55.8	64.3	47.5	-	30.4	48.8	50.0
Number of Respondents	1	713	414	11	9	625	26	1	1	353	1,446	896	1	112	43	4

* The figures in the lowest row stand for the number of respondents.

4. 앞으로의 現在避妊實踐率 向上을 위한 基本對策

本分析結果에서 提示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의 現在實踐率을 60퍼센트 以上線에 도달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基本對策이 중점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30歲 以下の 젊은 有配偶婦人들에 대한 집중적인 家族計劃 弘報 및 教育이 展開되어야 하며 이들 젊은 層의 避妊實踐率의 上昇없이 앞으로의 現在實踐率 60퍼센트 線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2) 少數子女觀의 育成도 중요하지만 특히 男兒選好思想의 是正없이 現在避妊實踐率의 현저한 上昇은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5. 標準化된 現在實踐率의 算出方法에 관한 提案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現在避妊實踐率은 婦人의 年齡,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 理想男兒數

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고 있으므로 地域別로 現在實踐率을 비교하는 경우 특히, 事業評價 등을 하는 경우는 現在實踐率을 최소한 이들 세가지 要因에 의하여 訂正된 標準化 實踐率로서 나타내 주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 要因들에 의한 有配偶婦人들의 分類는 다음과 같이 8 가지로 하기로 한다.

年 齡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	現存男兒數	婦人人口	現在實踐率
30歲以下	많다 또는 적당하다	0名P ₁X ₁
		1名以上P ₂X ₂
	적다 또는 아직 생각해본 일 없다	0名P ₃X ₃
		1名以上P ₄X ₄
30歲以上	많다 또는 적당하다	0名P ₅X ₅
		1名以上P ₆X ₆
	적다 또는 아직 생각해본 일 없다	0名P ₇X ₇
		1名以上P ₈X ₈

1) 直接法에 의한 標準化 現在實踐率의 算出

直接法에 의하여 어떤 地域(예: 面, 郡 등)의 標準化 現在實踐率을 算出하려면 해당 地域의 有配偶婦人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入手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婦人들의 年齡(30歲 以下, 30歲 以上).
- ②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많다 또는 적당하다,” “적다 또는 아직 생각해본 일이 없다”)
- ③ 現存男兒數(0, 1名 以上)

그리고 이들 8 가지 群別로 現在實踐率이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標準化 現在實踐率은 다음과 같이 計算할 수 있어야 한다.

$$\text{標準化 現在實踐率} = \frac{\sum_{i=1}^8 \text{PsiXi}}{\sum_{i=1}^8 \text{Psi}}$$

단, Psi: 標準婦人人口의 i번째群의 婦人數(또는 比率) (i=1, 2, …… 8). 이 比率은 全國出產力調査 등의 結果.

Xi: 該当地域의 i번째 群의 婦人들의 現在避妊實踐率(i=1, 2, …… 8).

2) 間接法에 의한 標準化 現在實踐率의 算出

이것은 다음과 같은 條件下에서 利用可能한 것이다.

- ① 該当地域의 有配偶婦人들의 전반적인 現在實踐率(\bar{X})은 알려져 있으나 위의 8개群別 現在實踐率은 파악되지 않고 있을때,
- ② 該当地域의 有配偶婦人들이 8개群으로 分類할 수 있을때 (P_i),
- ③ 標準婦人人口의 전반적인 現在實踐率(\bar{X}_s)와 8개群別 現在實踐率이 있을때(예: 全國出產力 調查結果) (X_{si}).

위의 條件의 內容들을 다시 記号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bar{X} : 該当地域의 有配偶婦人의 전반적인 現在實踐率,

P_i : 該当地域의 有配偶婦人人口의 i 번째 群의 婦人數(또는 比率) ($i=1, 2, \dots, 8$),

\bar{X}_s : 標準婦人人口의 전반적인 現在實踐率(예: 全國出產力 調查結果),

X_{si} : 標準婦人人口의 i 번째 群의 現在實踐率($i=1, 2, \dots, 8$).

이들 記号를 利用하여 間接法에 의한 標準化 現在實踐率은 다음의 과정을 밟아 算出하게 된다.

$$1 \text{ 段階} : \frac{\sum P_i X_{si}}{\sum P_i} = A,$$

$$2 \text{ 段階} : \frac{\bar{X}_s}{A} = B,$$

$$3 \text{ 段階} : \text{該当地域의 標準化 現在實踐率} = X \cdot B.$$

IV. 結 論

標準調查結果에 따르면 1976年 現在 우리나라 有配偶婦人들의 現在避妊實踐率은 約 44퍼센트 線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앞으로 1981년까지 設定된 人口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現在實踐率을 60퍼센트 水準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人口政策分析分野의 의견이다. 과연 이와 같은 水準에 達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避妊實踐에 관련된 要因들이 무엇이며 그 要因은 어느 정도 制御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本調査分析에서는 家族計劃研究院이 1976년에 실시한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結果에서 有配偶婦人中 4,665명의 応答內容에 입각하여 現在避妊實踐率을 (1) 婦人의 年齡, (2)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 (3) 現存男兒 및 女兒數 등에 따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와 現存男兒 및 女兒數들이 制御된 与件下에서도 30歲 以上の 婦人들의 現在實踐率은 30歲 以下群에 比하여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現在避妊實踐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可妊婦人들 中에서도 특히 젊은 年齡層에 대한 집중적인 家族計劃事

業活動이 요구됨을 반영해 주고 있다.

(2) 現存子女數에 대하여 “많다 또는 적당하다”는 態度的 婦人들은 實은 避妊의 必要性을 누구보다도 強하게 느끼고 있는 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아들이 없는 경우는 現在避妊實踐率은 30퍼센트 線을 넘지 못하고 있고 現存男兒數가 1명 以上이 되어 비로소 現在實踐率이 60퍼센트 線에 達하고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은 現存女兒數에 關係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現在實踐率 60퍼센트의 目標達成은 男兒選好思想의 是正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暗示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現存女兒數에 대하여 “적다 또는 아직 생각해본 일이 없다”는 態도는 避妊의 必要性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와 같은 態度的 婦人들의 現在實踐率은 30歲 以下群에서 現存男兒數에 따라 12~19퍼센트 정도의 범위내에 머물고 있지만 30歲 以上群에서는 現存男兒數가 0명인 경우는 現在實踐率 8퍼센트로서 역시 低調하나 1명인 경우는 38퍼센트, 2명인 경우는 45퍼센트의 水準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것 역시 現在避妊實踐率은 現存男兒數에 따라 絶對적인 影響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現在避妊實踐率을 地域別(예: 面, 郡 등)로 比較評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① 婦人의 年齡, ② 現存子女數에 대한 態度, ③ 現存男兒數에 따라 標準化시켜 주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 1) 金 智 子, “韓國農民의 家族計劃受容과 「코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研究, Vol. 7, 1973.
- 2) 金智子, 朴貞淳, 朴善圭, 李滿英, 人口 및 家族計劃弘報啓蒙메시지의 內容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7. 12.
- 3) 文 顯 相, 出產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3.
- 4) 邊時敏, 鄭慶均, 權豪淵, 金泳起, 家族計劃要員의 努力投入 및 그 效果測定에 관한 調查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4. 7.
- 5) 宋 建 鏞, 韓 聖 鉉, 1973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4. 12.
- 6) 李 榮 勳, “家計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한 避妊普及效果,” 家族計劃論集, Vol. 2, June 1975.
- 7) 趙 南 勳, “家族計劃,” 人口와 家族計劃, 保健社會部 1977.
- 8) 趙南勳, 李奎植, 洪性烈, 金星姬, “經濟發展에 따른 子女의 效用 및 費用의 變化가 出產에 미치는 影響,” 家族計劃論集, Vol. 4, Nov. 1977.
- 9) 崔 仁 鉉, 孔 世 權, 出產力變動과 避妊樣相, 家族計劃研究院, 1977. 12.
- 10) 韓 聖 鉉, 李 時 伯, “出產進도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析,” 家族計劃論集, Vol. 4, Nov. 1977.

(Abstract)

An Analysis of Currently Practicing Rate of Contraception

Based on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Ung Ring Kp* Sook Yoon**

A sample survey on family planning practice has revealed that the currently practicing rate of contraception among Korean married women in 1976 turns out to be 44 per cent.

To meet the goal of population target set for the year of 1981, howev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level of currently practicing rate should reach at least 60 per cent.

Obviously, the prospect of achieving such goal will depend very much on the ability of detecting and controlling the factor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behavior of choosing to limit their fertility.

Of a numerous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influential factors to the acceptance of family planning practice, the authors have selected three seemingly most effective factors to see how the currently practicing rate of contraception varies with the levels of such factors.

The three factors are 1) age of women, 2) attitude towards the number of children, and 3) number of living sons and daughters.

From the analysis of 4,665 married women's data obtained from the 1976 sample fertility survey sponso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following major findings are derived.

1) Even when both the attitude towards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number of living sons and daughters are controlled the currently practicing rate is significantly higher among married women aged over 30. (see Table 2,3)

This implies that substantial increase in currently practicing rate can hardly be

*Professor, Dept.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Han Yang University, Medical College.

**Population Dynamics Unit, KIFP.

anticipated without greater program effort with emphasis on the younger married women's participation in family planning.

- 2) It was revealed that the currently practicing rate among married women who allegedly recognize the positive need for limiting the family size is still being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number of sons owned.

That is, 60 per cent of those with one or more sons were currently practicing contraceptives while that of without son turned out to be only 30 per cent. (see Table 2) On the other hand, no sign of such trend could be observed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daughters. (see Table 3) This also indicates that the goal achievement of currently practicing rate as high as 60 per cent in 1981 is less likely unless the boy preference trend to taper off.

- 3) For the future comparative study or evaluation of currently practicing rates of contraception, they should be standardized at least by age of married women, attitude towards the number of children and number of sons owned as described in this paper.